

# 미국의 광주학살 개입에 관한 연표

## Chronology of United States Involvement in the Gwangju Massacre

작성 : 조지 카치아피커스

- 1979년 2월 미국의 국무부 장관 밴스가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에게 미국의 목표는 “점점 더 번창하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로부터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1979년 7월 니카라과 혁명 승리
-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
- 1979년 11월 4일 이란주재 미국대사가 학생들에게 피랍되다. 미국 외교관과 민간인 66명이 1981년 1월까지 붙잡혀 있었다. (1979년 1월 이란 혁명이 터져 국왕을 몰아냈다.)
- 1979년 11월 29일 글라이스틴 : “마늘과 고추를 먹고 사는 호전적인 이 사회가 그 본성에서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신호가 있다. 수십 년 동안 정부 당국과 극단적으로 충돌해 온 반체제 인사들과 일부 야당은 현 정부가 제안한 개혁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유신체제를 즉각 해체하라는 자신들의 극단적인 요구를 되풀이해 왔다.”
- 19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9호 해제되다. 69명 이상의 양심수가 석방되다.
- 1979년 12월 8일 미국의 국무부 차관 리처드 홀브루크가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“누구도 또 하나의 이란을 원하지 않는다”면서 기독교인들에게 “장기적인 지지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”이라고 말하도록 했다. 11월 초에 홀브루크는 예상되는 양극분열이 “한줌의 극단적인 기독교 반체제 인사들” 때문이라고 비난했다.
-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다 (12·12 쿠데타)
- 1979년 12월 25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다
- 1980년 2월 미국은 전두환이 광주의 불만을 진압하려고 휴전선 이북에 투입할 공수특전단을 모집하여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.
- 1980년 4월 16일 미 국무장관 밴스 전송 : “많은 긍정적 발전에 대해 큰 만족을 느낀다”
- 1980년 5월 8일 미국의 국방정보국(DIA)이 합동참모본부(JCS)에 (광주에서 야만적 학살을 벌인) 제7공수여단이 “아마도 전주와 광주의 대학들에서 벌어지는 소요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”이라고 보고했다.

- 1980년 5월 8일     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낸 보고 : 공수부대가 “예상되는 학생시위를 처리하기 위해” 이동했다.
- 1980년 5월 9일      글라이스틴이 전두환을 만나다 : “만일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군대를 투입하여 경찰을 보강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이 있다면 미국은 반대하지 않는다.”
- 1980년 5월 9일      미 국무부와 국방정보국이 전송하다 : 미국은 학생 시위에 군대를 투입하려는 전두환에게 적절한 승인을 했다.
- 1980년 5월 10일     미 국무부 차관보 크리스토퍼가 글라이스틴에게 : “우리는 군대를 투입해서 경찰을 보강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.”
- 1980년 5월 16일     주한미사령관 위컴은 제20사단이 광주에 파견될 수 있다고 승인했다. 그는 “워싱턴에 있는 자신의 상급자와 상의한” 후 제20사단을 미군이 통솔하는 작전통제범위에서 해제했다.
- 1980년 5월 19일     주한미사령관 위컴이 워싱턴에 보고하다 : “유일한 문제는 권력을 굳히는 속도이며,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다.”
- 1980년 5월 21일    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고하다 : “광주에서 일어난 대중 폭동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으며, 긴급 상황을 야기했다.” “거대한 군중이 일시적으로 도시의 운영권을 장악했다.”
- 1980년 5월 21일     미 국방정보국 관계자 : “광주에서 폭동 진압에 나선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를 해제한 미국의 결정이 반미 분위기를 엄청나게 확산시켰다.”
- 1980년 5월 22일    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고하다 : 광주는 “완전히 공포의 현장으로 빠져들었다. 폭도들이 머리 위로 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쏘았다고 보고받았다.”
- 1980년 5월 22일     미 국방부 대변인 : 위컴 사령관은 “자신의 작전통제 아래 있는 한국군 일부 부대를 군중들을 진압하는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고 승인했다.”
- 1980년 5월 22일     백악관은 (군사정권 반대 소요의 전면화를 두려워하면서) 광주 진압을 승인했다. “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광주에서의 질서 회복이라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.” 제20사단이 서울의 연합사령부로부터 이동한 것을 승인했다. 미국 수출입은행 총재 존 무어의 6월 서울 방문을 승인했다. (1980년 12월,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들이기 위한 6억 달러 신용차관을 승인했다.)
- 1980년 5월 23일     글라이스틴이 한국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“군건한 반소요 조치”를 요청하다. 그는 “우리는 워싱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에 투입할 공수특전단을 ‘나눠’ 달라는 요청에 확고한 응답을 하면서,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- 1980년 5월 23일 미 국무부 대변인 호딩 카터의 발표 : 카터 정부는 “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미루는 대신 한국의 안전과 질서 회복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.”
- 1980년 5월 24일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미군 항공모함이 도착할 때까지 광주 진압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.
- 1980년 5월 25일 미 국무장관 머스키의 전송 : “광주에서의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쪽으로 전개되었다.” 그의 정보원에 따르면 “온건파 시민위원회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급진파가 상황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. 인민재판이 열렸고 몇 건의 처형이 벌어졌다. 학생 시위대는 혁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는 신원 미상의 무장한 급진세력들로 대부분 대체되었다.”
- 1980년 5월 26일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고하다 : “광주에서의 상황은” 더 나쁜 쪽으로 급격히 전개되었다. 민병대, 무장한 급진파의 복귀, 심지어 인민재판과 처형에 관한 보고들이 있다.
- 1980년 5월 26일 글라이스틴이 광주의 대변인으로부터 중재에 나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했다.
- 1980년 5월 27일 군대가 광주를 다시 장악하다
- 1980년 6월 21일 미 국무부 차관보 워렌 크리스토퍼가 홀브루크 차관에게 보고 : 전두환은 “현명한 경제정책들을 수행할” 필요가 있다.
- 1989년 6월 19일 미 국무부 백서 : 미국은 “공수특전단이 광주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.”
- 1995년 12월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
- 1996년 3월 11일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다 (1심 선고는 8월 26일, 대법 선고는 1997년 4월)
- 199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, 광주 시민 가운데 82.5%, 나머지 한국인 가운데 50.8%가 미국이 개입되었다고 믿고 있다. 또한 광주 시민 가운데 44.5%가 미국의 사과를 원하고 있으며, 21.8%는 미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- 2002년 5월 18일 지미 카터와 7명의 다른 미국 관리들이 광주 민중의 시민권을 침해함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민중법정은 판단했다.
- 2002년 10월 11일 지미 카터가 노벨평화상을 받다. 노벨위원회는 지미 카터가 수십 년 동안 “국제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,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진시키기 위해,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”을 했다고 추켜세웠다.